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

이화여자대학교 김 병 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 예 지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개최된 2022년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정기학술대회는 훌륭한 학술프로그램과 행사들을 기반으로 역대급 규모의 참가인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이렇게 우리 학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 여러 선배님의 희생과 노고가 깃들여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학생 때부터 참여했던 학회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회가 향후 50년, 아니 그 이상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더 힘써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히 미래 세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특히 후학들이 바라는 학회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추구해나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이 글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학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생물·생명공학 분야의 다양한 과학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학회를 위한 여러 선배님의 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미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국내 미생물 관련,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 연구자들의 교류와 소통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0 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학회에 남겨진 계속되는 숙제는 이러한 역할을 지속해서 담당하며 후학들을 위한 더 나은 지원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회의 VVIP는 단연코 학생회원들이며, 이들의 성장이 우리 학회의 미래발전 원동력이 이 자명합니다. 학생회원에게 더 나은 학회의 역할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저희의 지난 학생 시절을 되돌아보았을 때, 역시 학술대회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역시 매년 학회 학술대회 참석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으로만 접하던 국내외 석학들을 직접 만나 뵈 수 있었고, 그들의 강연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이해도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며,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는 기회를 통해 내가 이 길 위에서 정진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 진행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고민하며 좌절할 때에는, 내 연구의 가치를 알아주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지닌 수많은 동료 연구자들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고, 이 길이 외롭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학회를 통해 연구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은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이처럼 학술대회는 연구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소통하는 법을 직접 배우고 익히는 멋진 훈련소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학술대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후배들에게 이 놀이터를 물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회원들이 학회를 통해 더 많은 도전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회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학생회원들이 자신들의 익숙한 분야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험을 학회가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발표 및 토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학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동료·선배연구자들과 친밀하게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 학회의 다양한 분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분야들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학회회원들이 다양한 곳에서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 학회의 정회원이 되고, 다시 후배 연구자들을 돕는 긍정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회의 외연도 더 없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ASM과 같은 외국 타 학회처럼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이른바 KMB student council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학생발표 심포지엄, 지역 과학행사 지원, 산업체 경험 등 후배들이 학생연구자일 때부터 학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한 가지 큰 변화를 꼽자면, 국내에서 연구하는 내외국인 박사후연구원의 증가입니다. 높아진 우리나라의 과학적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정부 및 학계의 다양한 노력이 더해진 결과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학회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 제안서 작성, 학술대회 세션 구성 등 박사후연구원 수준에서의 발전기회를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어 이들이 우리 학계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 학계, 연구소에서 독립적 연구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생존과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진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마음의 고향이자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신진연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선배연구자들과 더 잘 교류하고 또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New PI meeting 등 신진연구자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회가, 신진연구자들과 선배연구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배양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9년 학술대회 초청 연사셨던 Stanley N. Cohen 박사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짚어 봅니다. 'There is no applied science if there is no science to apply.'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기초와 응용,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